
2023 러시아 식품분야 주요 인증 및 라벨링 제도

2023년 8월

〈본문요약〉

1. 러시아 식품시장 개황

- 러시아 식품시장은 2022년 전년대비 13.4% 증가한 21조 루블이었으며,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.
- 특히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2년 전년대비 63.2% 증가한 6,250억 루블로 최근 2년간 연평균 101%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.
- 2021년 신선식품이 전체 식품시장의 60%를 차지하며, 그 중에서 육류 시장이 1/3 이상임.
- 2021년 러시아인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에 1,159달러를 지출하였으며, 이는 전체 소비지출 규모의 약 19%를 차지함.
- 최근 러시아는 식품 및 농산원료품 부문의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2021년 식품 및 농산원료품 부문의 수출은 전년대비 21% 증가한 약 360억 달러, 수입은 전년대비 14% 증가한 340억 달러였음.
- 한국의 대러시아 농수산물식품분야 교역은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, 2022년 한국은 러시아에 전년대비 0.3% 감소한 2억 4,170만 달러를 수출하고, 전년대비 6.2% 증가한 19억 5,030만 달러를 수입하였음.
- 비우호국을 중심으로 식품분야에서의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추세임.

2. 식품분야 주요 인증제도

- 필수 인증제도인 EAC는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,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함.
- 현재 식품분야에서의 GOST/GOST R 인증은 자율인증이지만, 여전히 러시아인들에게 신뢰받는 인증으로써 마케팅에 효과적임.
- 2020년부터 시행중인 유기농 인증은 자율인증이지만, 향후 제품에 유기농뿐만 아니라, ‘에코’, ‘바이오’, ‘친환경적’, ‘그린’ 등과 같은 용어는 유기농 인증을 받을 때에만 표기가 가능함.
- 러시아에는 무슬림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7%인 2,500만 명 이상으로

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할랄 인증 표기가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음.

3. 식품분야 주요 라벨링 제도

- 현재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의무 라벨링 제도인 ‘체스니 즈낙’은 소비자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제품군에 먼저 시행됨에 따라 식품 분야에서 적용 제품군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.
- ‘체스니 즈낙’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제품과 데이터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.
-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주류 및 담배 제품에 개별소비세 라벨링이 필수임.
- 향후 지류 개별소비세 라벨링이 디지털 라벨링으로 전환될 계획임.

4.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제시

- 인증은 수출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, 최근 신규로 적용되는 제도들이 있는 만큼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음.
- 특히 ‘체스니 즈낙’은 향후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제도를 숙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- EAC 인증을 받게되면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 회원국 전체에 통용되므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EAEU 회원국 전체를 수출시장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.
- 최근 러시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 제품, 보존야채, 무설탕 음료, 할랄 제품 등이 수출 유망 제품으로 판단됨.